中國語文學 第 48輯(2006. 12) 357-378 쪽

顧愷之의 문학에 관한 小考

박 세 욱*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고개지의 생몰연대에 관하여
Ⅲ. 문학작품의 정리와 분석
Ⅳ. 나가면서

Ⅰ. 들어가며

顧愷之는 중국 화론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작가로 평가되면서, 그를 일컬어 세 가지 빼어남[三絶], 즉 畵絶·文絶[1]·痴絶이라 하였다. 그의 畵絶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나, 고개지가 이전의 그림을 보고 평가한 문건과 화론 그리고 그가 남긴 그림에 관한 몇몇 에피소드 등을 통하여 그가 중국 繪畫에 있어서 그 絶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꽤 많았다. 그러나 그가 쓴 문장 즉 문학에 있어서는 과연 "絶"함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앞서 생각해보면 고개지는 중국 예술사에 있어서 문학과 회화를 하나로 합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개지의 손에 이르러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 경북대학교 강사

1) ≪晉書≫<顧愷之傳>(중화서국, 1996, 8/2404)에는 "才絶"로 되어 있고, ≪世說新語·文學≫에서 인용하고 있는 宋明帝의 ≪文章志≫에는 "文絶"로 되어있다. "才"에는 다양한 문예와 재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畵絶"이나 "痴絶"이라는 구체적인 "絶"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文絶"로 바꾸었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고에서는 가능한 미학이나 미술사적인 언급을 재삼 거론하면서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장을 통하여 그의 예술관이 이미지가 아닌 언어로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고개지의 생몰연대에 관하여

고개지의 저작물은 《隋書·經籍志》에 따르면, 《通直散騎常侍顧愷之集》 7권이 있다고 하고, 梁代에는 20권이 있었다고 하며[2], 《晉書》에 실린 <顧愷之傳>에도 "문집과 《啓矇記》가 세상에 전한다."고[3] 하였으나 현재 그의 저작물은 하나도 완전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들은 단지 여기저기 흩어져 남아있는 고개지의 문건을 종합하여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고개지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는 《晉書》·《歷代名畵記》·《世說新語》를 들 수 있고,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고개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십여 개의 문장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기록에서도 고개지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급이 없고, 단지 62세를 살았다고만 《晉書》는 전한다.[4]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죽은 시기를 알아내서 거꾸로 추정해야만 하는데, 그마저도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다. 다행이도 고개지가 남긴 글 중에서 <祭牙文>이라는 일종의 祭文이 가장 늦은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지어진 이후에 죽은 것으로 추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藝文類聚》 권60, <牙> 조목에 실려 있는 <祭牙文>이라고 命名된 글에서: "모년 모월 일에 록상상서 예장공 裕는 皇帝·蚩尤·五兵의 신령님께 고합니다. (裕維某年某月日, 錄尙書事豫章公裕,

2) ≪隋書·經籍志≫, 중화서국, 1996, 4/1070.
3) ≪晉書≫, 중화서국, 1996, 8/2406.
4) 상게서, 8/2406.

敢告黃帝蚩尤五兵之靈.)"[5]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예장공 裕는 劉裕(363~422)를 지칭한다. 《晉書》<帝紀第十>에 따르면, 그가 錄尙書事가[6] 된 해는 義熙四年(408) 春正月 이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고개지는 이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이 된다. 결국 고개지의 죽음을 408년 이후로 잡는다면, 그는 62세를 살았으므로 그의 생년은 늦어도 345년이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고개지가 그림으로 크게 이름을 떨 친 것은 瓦棺寺의 벽에 <維摩詰像>을 그리게 되면서 인데, 《歷代名畵記》 권5에 따르면 <京師寺記 >를 인용하여,

> "興寧년에 와관사가 막 창건되어 스님들이 법회를 개최하며, 조정의 신하들을 초청하여 시주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에게는 십만이 넘지 않았으나, 長康(고개지의 字)이 와서는 곧장 백만 전을 시주하겠다고 하니, 장강은 본디 가난하였기에 사람들은 모두 헛소리로 생각하였다. 나중에 스님들이 결재해 줄 것을 청하자, 장강이 말하기를, '벽 하나를 준비해 주시오.' 라고 하였다. 마침내 문을 닫고 일 개월을 왕래하더니, 그가 그린 것은 <維摩詰>의 像 이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눈동자를 찍으려 하면서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첫 날 보는 자에게는 십만의 시주를 청하고, 둘째 날 보는 사람에게는 오만을, 셋째 날은 예에 따라 시주를 받으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문을 열자 광채가 온 절을 비추었고, 시주 자들이 북적대더니 갑자기 백만 전이 되었다."[7]

고 하였다. 여기에서 興寧년은 哀帝(司馬丕)가 363년 2월에 融和에서 바

5) 嚴可均, ≪全晉文≫ 권135. 그 다음의 문장을 참고로 실어보면, 兩儀有政, 四海有王. 奉命在天, 世德重光. 烈烈高牙, 闐闐伐鼓. 白氣經天, 簡揚神武. 2236쪽.

6) 錄尙書事 : 太子의 스승 역할을 주로하며, 황제의 고문역으로, 중앙 정부의 정1품의 관리.

7) ≪歷代名畵記≫ 권5 <京師寺記> : 興寧中, 瓦棺寺初置, 僧衆設會, 請朝賢鳴刹注疏. 其時士大夫莫有過十萬者, 旣至長康, 直打刹注百萬. 長康素貧, 衆以爲大言. 後寺衆請勾疏, 長康曰: '宜備一壁.' 遂閉戶徃來一月餘日, 所畫<維摩詰>一軀, 工畢, 將欲點睛子, 乃謂寺僧曰: '第一日觀者請施十萬, 第二日可五萬, 第三日可任例責施. 及開戶, 光照一寺, 施者塡咽, 俄而得百萬錢."

꾼 연호로 이후 이 연호는 3년간 사용되었으므로 363년에서 365년 사이를 말한다. 고개지의 沒年을 408년으로 설정하여 본다면, 그가 와관사에 벽화를 그린 나이는 17~20세 사이가 되는데, 그의 그림에 있어서의 천재성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고개지가 지었다고 하는 <拜散騎常侍表>에는 "폐하의 성은이 보태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오나, 侍從臣의 반열에 올라, 담비꼬리와 금은 구슬의 광채로 장식을 하였습니다.(不悟陛下聖恩所加, 登之常伯之列, 飾以貂璫之暉.)"[8]라고 하였는데, 《世說新語·言語》에서 丘淵之의 《文章錄》를 인용하여 義熙初에 散騎常侍가 되었다고 했으므로[9], 表에서 말하는 폐하는 바로 晉 安帝(396~418)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安帝가 연호를 義熙로 開元한 것은 405년이므로 고개지의 나이는 대략 59세 바로 이즈음에 고개지는 대시인 謝靈運(385~433)의 사촌형인 謝瞻과 사무실을 가까이하며[連省], 그의 시를 사첨에게 평가받았던 때로, 당시 사첨은 安城太守를 지내고 있었다. 결국 고개지는 3년 뒤에 죽으므로 그가 죽기 전의 마지막 관직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고개지는 桓溫(312~373)의 참군을 지내며 환온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10] 그러나 환온이 병사하고, 荊州의 군사권이 殷仲堪에게 넘어가기 바로 전에 은중감의 參軍이 되어 특별한 知遇를 받는다. 그 후 은중감은 환온의 아들 桓玄의 공격을 받고 살해되자, 고개지는 다시 환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다 환현이 반란을 일으켜 주살되자(404), 安帝의 수하에 들어가 散騎常侍가 된다. 이러한 고개지의 정치적

8) 엄가균, 상게서(2236).

9) ≪世說新語·言語≫(상 209쪽) : 丘淵之≪文章錄≫曰: "顧愷之字長康, 晉陵人. 父悅, 尙書左丞. 愷之, 義熙初爲散騎常侍." 본고에서 인용된 ≪世說新語≫의 문장 번역은 김장환 교수의 역주본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10) 상게서(상 216쪽) : 宋明帝 ≪文章志≫曰: "고개지는 환온의 참군이 되었으며 매우 친애함을 받았다.(愷之爲桓溫叅軍, 甚被親暱)" 또한 환온과 고개지는 書畵를 논하면서 지칠 줄 몰랐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개지의 그림에 관한 이론들은 이 시기 형주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歷程은 아무리 그가 "痴絶"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그가 추숭하였던 죽림칠현이 표방한 정치적 기치와 처세에도 거리가 먼 것임에는 틀림없다.

Ⅲ. 문학작품의 정리와 분석

고개지의 문학작품은 嚴可均(1763~1843)이 모아놓은 《全晉文》, 권135에 따르면,

1. <雷電賦>: ≪藝文類聚≫ 권2, ≪初學記≫ 권1, ≪太平御覽≫ 권13.
2. <觀濤賦>: ≪藝文類聚≫ 권9
3. <氷賦>[11]: ≪藝文類聚≫ 권9, ≪初學記≫ 권7.
4. <湘中賦>[12]: ≪太平御覽≫ 권918.
5. <湘川賦>[13]: ≪北堂書鈔≫ 권152
6. <箏賦>: ≪藝文類聚≫ 권44, ≪初學記≫ 권18.
7. <鳳賦>: ≪藝文類聚≫ 권99, ≪初學記≫ 권30.
8. <拜員外散騎常侍表>: ≪北堂書鈔≫ 권58.
9. <虎丘山序>[14]: ≪藝文類聚≫ 권8
10. <嵇康贊序>: ≪文選≫ 권5, <五君詠>의 注
11. <水贊>: ≪藝文類聚≫ 권8
12. <祭牙文>: ≪藝文類聚≫ 권60, ≪太平御覽≫ 권839
13. <與殷仲堪牋>[15]: ≪晉書≫ 권92; ≪世說新語·排調≫

11) 이 작품을 일부분 인용하고 있는 문건으로 彭大翼撰, ≪山堂肆考≫ 卷 23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顧愷之氷賦 綃白隨川, 方圓隨渠 託形超象, 比朗玄珠"라고 인용하고 있다.

12) ≪太平御覽≫ 권918 : "陽鴈山雞", 문연각사고전서, 901-221a.

13) ≪北堂書鈔≫ 권152 : "其表則有滋澤晨潤, 彫霜夜凝.", 속수사고전서, 1213-92a.

14) 이 문장은 明代 錢穀撰 ≪吳都文粹續集≫ 卷 20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

15) 이 글은 ≪世說新語·排調≫에 가장 자세하게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고개지가 은중감의 막료로 있다가 휴가를 떠났는데, 고집하여 얻어간 돛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져 고개지가 은중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지명이 파총

14. <父悅傳>[16]: ≪世說新語・言語≫의 注; ≪天中記≫ 권51.
15. <畫贊>[17]

이밖에도 嚴可均이 다 모으지 못한 것으로,

첫째, ≪晉書≫에서 桓溫이 죽은 후 고개지는 환온의 묘에 참배하고 시를 지어 이르기를,

>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고갈되었으니, 물고기와 새는 장차 어디에 의지할까?"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 "당신은 심하게 환온을 의지하였는데, 그 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소?" 라고 하자, 고장강이 말하기를 : "울음소리는 우레가 내리쳐 산을 부수는 듯하고, 눈물은 강을 기울여 바다에 붓는 듯하오."[18]

이라 하더니, 정말로 무덤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안전하고 배 돛은 별 탈이 없습니다.(地名破冢, 眞破冢而出. 行人安穩, 布帆無恙.)" 라고 하였던 것이다. 바로 고개지의 재치가 드러나는 문장이라고 하겠다. 김장환 교수는 역주본에서 "行人安穩, 布帆無恙"은 원래 "行人無恙, 布帆安穩" 라고 해야 하는 것을 고개지가 일부러 "無恙"과 "安穩"을 바꾸어 씀으로서 배가 뒤집혔음을 넌지시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하, 324~5쪽.) 그렇게 볼 때 고개지의 문학적 재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16) 상게서, (상, 174쪽)의 注 :"부군께서는 곧은 도의를 지녔기 때문에 늦게 출세하셨다. 조정에 들어가 왕을 알현할 때, 왕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부군께서는 이미 반백이셨다. 이에 왕이 부군께 나이를 물으시며 '경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반백이 되었소?' 라고 하시자, 부군께서 대답하시길, '송백의 모습은 서리를 맞아도 무성하겠지만, 신의 갯버들 같은 자질은 가을을 바라보면서 먼저 시듭니다. 이는 받은 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 하시자 왕께서는 이를 오래토록 칭찬하셨다.(君以直道陵遲於世. 入見王, 王髮無二毛, 而君已斑白. 問君年, 乃曰: "卿何偏早白?" 君曰: "松柏之姿, 經霜猶茂, 臣蒲柳之質, 望秋先零. 受命之異也." 王稱善久之.) 단지 고개지 부친의 단순한 에피소드지만, 그 역시 상당한 문학적 재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엄가균은 ≪晉書≫<王衍傳>의 문장을 찾아서 "巖巖清峙, 壁立千仞."라고만 하였는데, ≪世說新語・賞譽≫(중, 237쪽)의 注에 따르면 더욱 자세하다. 이에 따르면, 顧愷之 ≪夷甫畫贊≫ 曰: "왕이보(연)는 타고난 풍모가 빼어나, 식자들이 수려하게 우뚝 솟아 천 길 벽으로 서있네.(夷甫天形寰特, 識者以爲巖巖秀峙, 壁立千仞.)"라고 하였다.

18) ≪晉書≫, (8/2405쪽) : 溫薨後, 愷之拜溫墓, 賦詩云: "山崩溟海竭, 魚鳥將何依."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개지가 환온의 묘에 참배하고 지은 詩句는 《文選》 卷23에 수록되어 있는 謝靈運의 <廬陵王墓下作一首> 에 달린 注에 따르면, <拜宣武墓詩>로 되어 있고, 방금 위에서 본 두 句와는 또 다른 2句를 보여준다. "멀리 생각하니 옛날 함께 살았던 것이 그리운데, 봉분을 어루만지며 지금은 없음을 슬퍼하네.(遠念羨昔存, 撫墳哀今亡)" "山崩溟海竭, 魚鳥將何依."라는 句와 韻은 맞지 않지만, 작가의 슬픈 정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둘째,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고개지의 작품 중에 가장 완정하다고 볼 수 있는 "봄물은 사방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에 많네. 가을 달은 휘영청 빛나고, 겨울 산은 외로운 소나무 빼어나게 하네(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峯.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 라고 노래한 <神情詩>시는 《藝文類聚》 권3에 처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張溥(1602~1641)의 《漢魏六朝百三家集》 卷62에서 陶淵明(365~427) 편에 <四時> 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고, 宋 郭祥正(1088 진사)의 《青山集》 卷25에는 이 시를 확장하여 <廣陶淵明四時>라는 제목으로 5언시를 지어 모두 도연명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宋 許顗의 《彦周詩話》에는 "고개지의 시가 《도연명집》에 잘못 편입되었다."고[19] 하였고, 張端義(1179~1248), 《貴耳集》 上卷과 胡仔(1110~1170)의 《漁隱叢話》 後集 卷3에도 許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陶宗儀(1329~1412) 《說郛》 卷82 下와 《御定淵鑑類函》 권21 <歲時部一>에도 고개지의 시로 소개하였고, 馮惟訥(1512~1572)의 《古詩紀》 卷42에도 고개지의 <神情詩>로, 李攀龍(1514~1570)의 《古今詩刪》 卷7에도 고개지의 <神情詩>로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두 작가의 생몰 연대에 있어서도 고개지가 20년 정도 도연명보다 빠르므로 이 시는 고개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 시는 4 句로 각 계절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내어 20 字로 표현하므로 서, 사

或問之曰: "卿憑重桓公乃爾, 哭狀其可見乎?" 答曰 " 聲如震雷破山, 淚如傾河注海."

19) 陶宗儀 《說郛》 卷82 下 : "此顧長康詩, 誤編入陶彭澤集中."

계절을 적지도 많지도 않은 길이로 충분히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후 많은 문인들이 이 시를 인용하였고, 蘇軾(1036~1101)은 전반 두 句의 글자를 韻字로 사용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으며,[20] 金代 李俊民(1200년 경 진사)은 《莊靖集》 卷3에서 <神情詩>의 각 句로 시의 제목을 삼아 4首의 5언시를 남겼을 정도로 이후 많은 시인들에게 膾炙된 작품으로 가히 고개지의 "文絶"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世說新語·文學》편의 注에는 고개지의 《晉文章記》를 인용하여, "阮籍의 勸進文은[21] 거침없는 광대한 정취가 있으면서도 지극히 우회적인 설법으로 서서히 본론을 드러냈다.(阮籍<勸進>, 落落有宏致, 至轉說徐而攝之也.)" 라고 한 조각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失傳 되었지만, 고개지는 晉代 문장가들을 품평한 저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완적은 고개지가 추숭했던 嵇康과 더불어 竹林七賢에 드는 작가이고, 완적의 음악 이론[樂論]은 고개지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世說新語·雅量》에,

> "하후태초[夏侯玄]가 일찍이 기둥에 기대서 글씨를 쓰는데, 마침 큰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기대고 있던 기둥을 부숴버렸다. 의복은 그을렸지만 神色의 변화가 없이 글 쓰는 것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좌우 賓客들은 모두 자빠져 안절부절못하였다.(夏侯泰初嘗倚柱作書, 時大雨, 霹靂破所倚柱, 衣服焦然, 神色無變, 書亦如故. 賓客左右, 皆跌蕩不得住.)"[22]

고 하였는데, 이글 아래 注에 고개지의 《書贊》에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

20) 王十朋, 《東坡詩集註》 卷3, <游桓山 會者十人以春水滿四澤夏雲多奇峰爲韻得澤字>

21) <勸進> : 남아있는 《阮籍集》에 따르면, 이 글은 <爲鄭沖權晉王箋>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晉"자와 "進"자의 음이 같아 생긴 오류로 보인다. 또한 완적문집은 1991 년 郭光이 교주본을 새로 출판하였으나 거기에서도 劉孝標 의 주석을 참고하지 않았다.

22) 《世說新語·雅量》, 중 111쪽.

만 다른 문헌에서도 역시 이와 똑같은 출처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어[23] 劉孝標(462~521)의 注를 따를 따름이다.

다섯째, 위에서 항목 15에서 우리는 <畵贊>의 언급을 보았지만, 《世說新語·賞譽》 王戎이 山巨源(濤)을 품평한 글에서 고개지의 <畵贊>을 인용하고 있는데,

> "山濤는 이름을 드러낸 바가 없었으며, 순박하고 심오하며 고요하고 과묵하여 사람들이 그의 끝을 알 수 없었으나, 그의 기량은 또한 도에 들어맞았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은 무어라 일컬을 수는 없지만, 그의 커다란 기량에 탄복하였다.(濤無所標明, 淳深淵默, 人莫見其際, 而其器亦入道. 故見者莫能稱謂, 而服其偉量.)"[24]

고 하는 문장이 보인다. 또한 같은 편에, 王夷甫(衍)가 山濤의 哲理를 묻는 조목에서도 역시 고개지의 <畵贊>을 인용하여, "山濤는 [노·장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믿고 의지하지 않았는데, 대저 이와 유사하였다.(濤有而不恃, 皆此類也.)" 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각 문장들이 고개지의 문장인지는 유일하게 劉孝標의 注를 의지할 따름이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고개지는 죽림칠현 중에서 阮籍·嵇康·山濤의 글이나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고개지의 예술관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개지가 저술한 그림에 관한 문건을 알아보자. 고개지의 그림에 관한 문건은 단지 張彦遠의 《歷代名畵記》에만 인용되어 있는데, 4개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論畵》·《魏晉勝流畵贊》·《畵雲臺山記》·《魏晉名臣畵贊》등 4 문건으로, 마지막에 있는 《魏晉名臣畵

23) 이러한 《세설신어》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문헌으로 《北堂書鈔》 권152; 宋 謝維新撰, 《古今合璧事類備要前集》 3권 《御定淵鑑類函》 卷; 《御定子史精華》 卷5; 《佩文韻府》 卷6, 17, 37, 52, 101; 朱鶴齡撰, 《李義山詩集注》卷1 上; 任淵注 《山谷內集詩注》卷6 등이 있다.

24) 상게서 <賞譽>, 중 205쪽.

贊》이라는 책은 제목 언급만 있을 뿐 내용이 전혀 전하지 않는다. 李澤厚는 《世說新語》에서 단편이 보인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단지 <畵贊>이라고 했을 뿐 그것이 《魏晉名臣畵贊》을 말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 다음 《歷代名畵記》 권3, 고개지 조목에는,

> "[고개지는] ≪魏晉名臣畵贊≫을 저술하였는데, 평한 분량이 매우 많다. 또한 ≪論畵≫ 한 편이 있는데 대개 模寫하는 要法들이다.(著魏晉名臣畫贊, 評量甚多. 又有論畫一篇, 皆模寫要法.)"

고 하였고, 다시 같은 권 衛協 조목에는,

> "<칠불>과 <대열녀>는 모두 위협이 그린 것으로 훌륭하며 情勢가 있다. <모시북풍도>역시 위협이 그린 것으로 情思의 표현에 있어서 절묘하고 긴밀하다. …… 고개지의 문집에 ≪論畫≫ 한 편을 보면, 위협의 그림 <북풍><열녀도>에 탄복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七佛>與<大列女>皆協之迹, 偉而有情勢. <毛詩北風圖>亦協手, 巧密於情思 …… 覽顧生集有≪論畫≫一篇, 歎服衛畫<北風><列女圖>, 自以爲不及.)"

고 하였다. 이 두 문건에서 이택후는 두 편의 서로 다른 《論畫》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첫 번째 문건의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두 문장의 독립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이다. 즉 "[고개지는] 《魏晉名臣畵贊》을 저술하였는데, 평한 분량이 매우 많았으며, 또한 《論畵》 한 편이 있는데 [《魏晉名臣畵贊》과 《論畵》] 모두 模寫하는 要法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나카무라 시게오(中村茂夫)가 주장한 대로 《歷代名畵記》에서 고개지 조목과 위협의 조목에 언급된 《論畫》는 같은 문건으로 본다. 그런데 《論畫》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魏晉시대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贊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또 《魏晉勝流畵贊》을 보면 오히려 《論畫》의 내용이 될 법한 模寫하는 要法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택

후와 시게오는 이들을 모두 같은 문건으로 보는데,[25] 이를 근거로 이 둘을 같은 문건으로 보기에는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顧愷之의 畵論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傳神寫照"로서 "傳神"하기 위해서는 "以形寫神" 하고 "遷想妙得"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傳神하려면 形의 도움을 빌어야한다는 것으로, 정신과 형식 두 방면에 고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의 작품으로 진본이건 摹本이건 남아 있는 그림 중에 한 작품도 의문이 없는 작품이 없으므로 그가 어떻게 그림에서 표현해 냈는지는 입증해 볼 수는 없다. 단지 그의 그림은 唐代 張彦遠의 평가에 따르면 "上品上" 이지만, 고개지의 화론을 계승한 南朝 謝赫의 평가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비평가의 눈은 시대적 풍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경향을 이해하지 않고서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미술 비평사적 논의이므로 논외로 한다. 반면에 고개지의 문학 작품은 그것이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神을 傳하기 위해서 形을 빌려야 한다는 회화적 이론을 조각으로 남아있는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남아있는 고개지의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작품은 <雷電賦>이다.

<雷電賦>는[26] 이미 東漢의 楊終이 雷를 소재로 부를 지었고(제목만

25) 李澤厚, ≪중국미학사≫ 中卷, 463~4쪽. 또한 논의된 세 문건의 교감본이 실려 있으니 참고바람.

26) 嚴可均, ≪全晉文≫ 권135 : ① 太極紛綸, 元氣澄練. 陰陽相薄. 爲雷爲電. 擊武乙於河而誅戮之罰明, 震展氏之廟而隱慝之誅見. 是以宣尼 敬威忽變. 夫其聲無定響, 光不恒照. 砰訇輪轉, 倏閃藏曜. 若乃太陰下淪, 少陽初升. 蟄蟲將啓, 動靈先應. 殷殷徐振, 不激不憑. ② 林鐘統節, 潛暑烟熅. 星月不朗, 衣牀若焚. 爾乃清風前颯, 蕩濁流塵. 豐隆破響, 列缺開雲. 當時倦容, 廓焉清新. 豈直驚安竦寐, 乃以暢精悟神. 怒將凌, 赤電先發. 窺巖四照, 映流雙絶. 雷電赫以驚衡, 山海磕其崩裂. ③ 若夫子午相乘, 水旱木零. 仲冬奮發, 伏雷先行. ④ 磕磕隆隆, 閃閃霴霴. ⑤ 豈隱隱之虛憑, 乃違和而傷生. 昭王度之失節, 見二儀之幽情. 至乃辰開日郎, 太清無靄. 靈眼揚積以麗煥, 壯鼓崩天而砰磕. 陵堆訇隱以待傾, 方地嶚嵲其若敗. 蒼生非悟而喪魂, 龍鬼失據以顚沛. 光驚於泉底, 聲動於天外. 及其洒北斗以誕聖, 震昆陽

전해짐), 동시대 晉代에 李顒과 夏侯湛이 이를 소재로 지었으며, 이후 隋나라 王霖의 <雷賦>, 唐代에는 張仲 <雷賦>, 甫樊珣 <春雷賦>, 滕邁 <雷在地中賦>, 謝觀 <初雷啓蟄賦>, 張鼎 <霹靂賦>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들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작품이 완전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부작품의 단편화 경향으로 보아서 없어진 부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문건으로는 明代 王志慶이 編한 《古儷府》과 清代 嚴可均이 모아 놓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왕지경과 엄가균이 수록하고 있는 부의 내용은 겨우 의성어 8字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 내용의 전개 순서는 사뭇 다르다. 대체로 부의 형식과 내용의 전개상으로 보았을 때 엄가균의 本이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이 작품을 논하여 보면, 이 작품은 일종의 詠物賦로서 동한 이후 敍事賦에서 賦 소재의 一新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4句와 6句를 중심으로 하는 駢麗賦의 틀에 구속되어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위진 남북조 시대 사물에 작가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면서 그 대상의 근원을 철학적으로 추궁하는 賦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루어진 字句의 對偶는 그가 神 못지않게 形 또한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畵論에서 보여주었던 黃老學적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작가가 이전에 드물게 사용된 典故를 작품 속에 인용하면서 작가의 풍부한 독서의 폭을 확인 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의 "文絶"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觀濤賦>를[27] 보면, 고개지 시대를 전후로 하여 曹毗의 <觀濤

以伐遠. 降枝鹿以命桀, 鳧雙潰而橫尸. 倒驚檜於霄際, 摧騰龍於雲涓. 烈大地以繞映, 惟六合以動威. 在虛德而卷舒, 謝神艷之難追.

明 王志慶編, ≪古儷府≫卷1에서는 ①⑤③②의 순서로 되어있고, ④는 보이지 않는다.

27) 顧凱之, <觀濤賦>, ≪御定歷代賦彙≫ 卷25 : 臨浙江以北眷, 壯滄海之宏流. 水無涯而合岸, 山孤映而若浮. 旣藏珍而納景, 且激波而揚濤. 其中則有珊瑚明月, 石帆瑤瑛. 彫鱗采介, 特種奇名. 崩巒填壑, 傾堆漸隅. 岑有積螺, 嶺有懸魚. 謨茲濤之

賦>와 伏滔의 <望濤賦>가 있으며, 宋代 羅公升 <浙江觀潮賦>, 明代 黃宗羲 <浙江觀潮賦>, 淸代 王錫 <錢塘觀潮賦>의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明나라 시기에 많은 언급과 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모두 고개지의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浙江의 경관을 중심으로 창작되었다. 남아있는 이 작품의 분량은 6言 14句와 4言 6句로 정형화 되어있고[28], 押韻의 방식과 구법에 있어서 駢麗賦 형식으로 對偶의 수법 역시 뚜렷하다. 하지만 내용은 위에서 본 <雷電賦>와는 달리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맛이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沈括(1031~1095)의 《夢溪筆談 》 권17을 보면,

> "書畵의 妙는 神會 로 해야지 형상과 기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 속의 形象, 위치, 색채나 그 瑕疵만을 지적할 뿐이지, 그림이 만들어낸 심오한 사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예를 들어 張彦遠은 <畵評>에서, '王維가 사물을 그림에 대부분 四時를 不問하였다. 꽃을 그리면서 종종 복숭아·살구·부용 등을 한 장면에 그리는 것처럼.' 우리 집에 소장하고 있는 摩詰의 <袁安臥雪圖>는 눈 속에 파초가 그려져 있으나, 이는 바로 마음먹은 대로 표현하여 그 뜻이 이루어져 그 이치가 神의 경지에 들었고, 天意를 얻었다. 이는 俗人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다."[29]

라고 하면서 神會를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심괄이 인용한 이

爲體, 亦崇廣而宏浚. 形無常而參神, 斯必來以知信. 勢剛凌以周威, 質柔弱以協順.

28) 顧凱之, <觀濤賦>, ≪御定歷代賦彙≫ 卷25 : 臨浙江以北眷, 壯滄海之宏流. 水無涯而合岸, 山孤映而若浮. 旣藏珍而納景, 且激波而揚濤. 其中則有珊瑚明月, 石帆瑤瑛. 彫鱗采介, 特種奇名. 崩檷塡壑, 傾堆漸隅. 岑有積螺, 嶺有懸魚. 謨茲濤之爲體, 亦崇廣而宏浚. 形無常而參神, 斯必來以知信. 勢剛凌以周威, 質柔弱以協順.

29) 최병규역, ≪몽계필담≫ 상, 291쪽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음. 그 원문을 보면 : 書畫之妙, 當以神會, 難可以形器求也. 世觀畫者多能指摘其間形象位置彩色瑕疵而已, 至于奧理冥造者罕見其人. 如彦遠畫評言 : "王維畫物, 多不問四時. 如畫花往往以桃杏芙蓉蓮花同畫一景." 予家所藏摩詰畫<袁安臥雪圖>有雪中芭蕉, 此乃得心應手, 意到便成. 故其理入神迥得天意. 此難可與俗人論也.

러한 장언원의 말은 《역대명화기》에 나오지 않지만, "雪中芭蕉"라는 모순된 표현은 적지 않게 膾炙 되었다. 이는 일종의 "格外談"으로서 서양의 "adynata impossibilia"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30] 그렇지만 이러한 "格外談"은 이미 고개지의 <觀濤賦>에서 나타난다. 바로 "봉우리에는 소라가 쌓여있고, 재에는 물고기가 걸려있네.(岑有積螺, 嶺有懸魚)"라고 한 표현으로, 王維(699~759)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南宗畵의 창시자 王維는 神韻詩派의 宗師이며, 중국 남 禪宗의 가장 이른 신봉자라는데 동의한다. 나아가 회화에 있어서 南北宗의 갈림은 唐代 禪宗의 남북분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미 《세설신어·문학》에는 남과 북의 학문을 비교하여 논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31] 보아 예술에 있어서도 남북의 분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개지는 출신 지역이나 神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왕유보다 빠른 남종화파의 선구이며 신운시파의 宗師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고개지는 <관도부>에 회화적인 맛을 더하여 形象을 초월한 至高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가의 文絶과 畵絶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셋째 <氷賦>는[32] 얼음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중국 賦 문학에서 처음으로 氷을 다룬 작품으로서 이후 많은 유사한 작품들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唐代 林滋의 <陽氷賦>, 陸環의 <水始氷賦>, 劉長卿과 韋應物의 <氷賦>, 侯喜의 <玉壺冰賦>, 張皓와 歐陽詹의 <藏冰賦>, 王起의 <開冰賦>, 陳岵의 <履春氷賦>, 宋代 夏竦의 <藏冰賦>, 宋祁의 <日在北

30) 錢鍾書, "中國詩與中國畵" in 《錢鍾書論學文選》 권6, 廣州 : 화성출판사 1990.

31) 《世說新語·文學》(상 292쪽) 褚季野語孫安國云 : "北人學問, 淵綜廣博." 孫答曰: "南人學問, 深通簡要." 支道林聞之曰: "聖賢固所忘言, 自中人以還, 北人看書, 如顯處視月, 南人學問, 如牖中窺日"

32) 顧凱之, <冰賦>, 《御定歷代賦彙》 逸句卷1 : 激厲風而貞質, 仰和景而融暉. 淸流離之光徹, 邈雲英之巍巍. 爾乃連縣絡幕, 乍結乍無. 翕然靈化, 得漸已麤. 緬白隨川, 方圓隨渠. 義剛有折, 照壺則虛. 託形超象, 比朗玄珠. 一綜理而常全, 經百合而彌切. 轉若驚電, 照若澄月. 積如累空, 泮若墮節. 臨堅投輕, 應變縷裂. 瓊碎星流, 淸練流越. 若乃上結薄映, 下鏡長泉. 靈龜隨流, 含馨揚鮮.

陸而藏冰賦>, 皇甫湜의 <履薄氷賦> 등을 들 수가 있다.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일부분이지만 4言과 6言으로 구성된 駢麗賦로서 隔句로 압운하며 산문적 성격은 희박하고 시적인 맛이 더욱 두드러진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얼음의 외적인 형태묘사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모습을 찾고자하는 작가의 노력이 역력하다. 얼음을 비유하여, 流離[琉璃의 음역], 驚電, 澄月, 照壺, 累空, 玄珠 등으로 외적인 표현을 하였고, 貞質, 緗白隨川, 方圓隨渠. 義剛, 墮節, 應變縷裂 등으로 내적 전형을 묘사하였다. 특히, "託形超象, 比朗玄珠." 라고 한 표현은 "傳神寫照"를 위한 방법으로 "以形寫神" 하여 "遷想妙得"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얼음이 비록 형체는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에 구애되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적절하게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바로 검은 구슬이지만 밝게 빛난다는 "玄珠"의 성격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그림에 적용하여보면 傳神하기 위해서는 역시 形이 필요하여 이용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전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遷想妙得"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賦에서 봉황을 소재로 다룬 작품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고개지의 <鳳賦>는[33] 이전 傅咸(239~294) <儀鳳賦>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았다. 특히 《藝文類聚》卷 90에는 동시대 桓玄이 鳳凰에 관한 부를 수록하고 있는데, 桓玄은 桓溫의 아들이다. 고개지는 桓溫이 죽은 후(373) 殷仲堪의 막료로 복무하는데[34], 《晉書·殷仲堪傳》에는 淸談과 문장에 뛰어났다고 하며, 환온의 아들 桓玄과 고개지는 荊州에서 친밀하게 서로

33) 顧凱之, <鳳賦>, 《御定歷代賦彙》 卷128 : 望太淸以抗思, 誕儀鳳之逸羣. 稟鶉火之靈曜, 資和氣之烟熅. 允鷄喙而燕頷 頸蛇蜿而龍文 勵歸昌於漢陽 發明徵乎聖君. 荷義揭正, 雞峙鴻前. 比翼交揮, 五光備宣. 與八風而降時雨, 音中鍾律, 步則規矩. 朱冠赫以雙翹, 靈質翩其高擧. 歷黃冠於招搖, 凌帝居之縣圃.

34) 《世說新語·排調》(하 325쪽)에는 "顧長康作殷荊州佐."라고 하였고, 《晉書·文苑》 권92에서는 "後爲殷仲堪參軍"라고 하였는데,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은형주"는 殷仲堪을 말한다. 은중감이 太原 16년(392)년 형주자사로 부임했으므로 그 이후일 것이다. 당시 고개지의 나이는 대략 46세였다.

지냈음을 《세설신어》를 통하여 알 수 있다[35]. 아마도 고개지의 이 작품은 바로 환현과 교유하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하여 太淸, 八風, 黃冠, 縣圃 등의 표현들로 보아 道家的 색채가 더욱 농후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鳳賦> 창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傅咸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고개지는 傅咸의 작품보다 음악적인 측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개지가 추숭하였던 嵇康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唐太宗의 <鳳賦>, 長孫無忌의 <威鳳賦>, 王勃의 <寒梧棲鳳賦>, 宋代 羅願의 <鳳賦>, 元代 吳萊 <羅浮鳳賦>, 明代 楊愼 <鳳賦>로 이어지면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춘 장편 大作으로 창작된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 역시 위에서 본 작품들의 형식과 문학적 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古樂器인 箏을 부로 서술한 것으로는 後漢의 侯瑾, 魏 阮瑀, 晉 傅玄, 晉 陶融妻陳氏, 晉 賈彬, 梁簡文帝, 陳 顧野王 등의 <箏賦>가 있고, 明末 毛奇齡의 <彈箏賦>가 남아 전해진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부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악기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당시 음악은 불안한 시대에 문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嵇康(223~262)은 <琴賦>에서

> "[음악], 사물에는 盛衰가 있으나 이것은 변함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질릴 수가 있으나, 이것은 지겹지 않다. 神氣를 닦을 수 있고, 情志를 조화롭게 할 수 있으니, 곤궁한 처지가 되어 번민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음악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반복하여 연주해도 부족하면 吟詠하여 뜻을 펴고, 음영해도 부족하면 언어에 기탁하여 뜻을 넓히는 것이다"[36]

35) 상게서(하 330쪽) : 桓南郡與殷荊州語次, 因共作了語. 顧愷之曰: "火燒平原無遺燎." 桓曰: "白布纏棺竪旒旐." 殷曰: "投魚深淵放飛鳥" 次復作危語 桓曰 "矛頭淅米劍頭炊." 殷曰: "百歲老翁攀枯枝" 顧曰: "井上轆轤臥嬰兒" 殷有一叅軍在坐, 云: "盲人騎瞎馬, 夜半臨深池" 殷曰 "咄咄逼人" 仲堪眇目故也.

고 하였던 것은 당시 문인들이 음악에 심취한 보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는 <箏賦>가 晉代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진 남북조 시대에 箏은 琴과 더불어 당시 중요한 연주 수단이었음을 말해 준다.

현재 남아 있는 고재지의 <쟁부>는[37]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4言과 6言으로 정형화 되어 있고 隔句로 押韻하는 전형적인 駢麗賦로 추정된다. ≪世說新語·文學≫에서,

> "어떤 사람이 고장강에게 묻기를 : '그대의 <쟁부>를 혜강의 <금부>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고장강은 말하기를 : '감상할 줄 모르는 자는 나중에 지었다고 하여 버려두는데,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진기하고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였다."[38]

라고 하였던 것을 보아 고개지는 혜강의 <琴賦>를 의식하고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箏賦>의 편폭 역시 혜강의 <琴賦>에 못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文選≫ 顔延年의 <五君詠> 중에서 嵇中散(혜강)을 노래하였는데, 그 注에 고개지가 嵇康을 칭송하여 쓴 <嵇康贊>을[39]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개지는 혜강의 贊을 쓸 만큼 추숭하

---

36) ≪嵇中散集≫ 卷2, <琴賦> 序 : 以爲物有盛衰, 而此無變. 滋味有厭, 而此不勸. 可以導養神氣, 宣和情志, 處窮獨而不悶者, 莫近於音聲也. 是故復之而不足, 則吟詠以肆志. 吟詠之不足, 則寄言以廣意.

37) 顧凱之 <箏賦>, ≪御定歷代賦彙≫逸句 卷1 : 其器也則端方修直. 天隆地平. 華文素質, 爛蔚波成. 君子嘉其斌麗, 知音偉其含清. 罄虛中以揚德, 正律度而儀形. 良工加妙, 輕縛璘彬. 玄漆緘響, 慶雲被身.

38) 상게서(상 368쪽) 或問顧長康 : "君<箏賦>何如嵇康<琴賦>?" 顧曰 : "不賞者, 作後出相遺. 深識者, 亦以高奇見貴."

39) ≪文選≫ 권21, 顔延年 <五君詠> 注 : "顧凱之嵇康讚曰: 南海太守鮑靚, 通靈士也. 東海徐寧師之. 寧夜聞靜室有琴聲, 怪其妙而問焉. 靚曰: 嵇叔夜. 寧曰: 嵇臨命東市, 何得在茲. 靚曰: 叔夜迹示終, 而實尸解" 인용된 이 조각 문장은 宋 潘自牧撰 ≪記纂淵海≫ 卷86과 元 劉履編, ≪風雅翼≫ 卷7에도 고루 인용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교감하여 보면, 마지막에 "迹示終"의 迹자는 "雖"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晉書》에서, "고개지는 늘 혜강의 4言詩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려고 하면서, 늘 말하기를 '手揮五絃易, 目送歸鴻難.'[40]"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지가 혜강의 문학을 좋아하여 시에 묘사된 情景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니, "돌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는 눈을" 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 형상의 표현은 쉽지만, 정신적 내면의 것을 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傳神의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더 어려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개지는 혜강의 문학과 사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箏賦>의 창작은 철저히 혜강의 <금부>와의 비교를 마음에 두고 행해졌으며, 문체와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琴賦>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에서 본 고개지의 賦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소리[音聲]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두 혜강과 완적을 추숭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여섯째, 호구산은 현재 蘇州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吳지방 제일의 명승지로 꼽힌다. 唐 陸廣微가 撰한 《吳地記》에 따르면, "합려가 吳縣의 閶門밖에 십만 명을 들여 무덤을 만들면서 호수에 임한 땅을 택하였다. 장례를 치르고 3일 뒤에 白虎가 그 위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호구산이라 명했다."[41] 고 한다. 과연 이 명승지를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하였는데, 고개지는 가장 선두에 서 있다. 고개지가 묘사한 호구산 문장은 극히 일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40) ≪晉書≫ 권92 : "愷之每重嵇康四言詩, 因爲之圖, 恒云: 手揮五絃易, 目送歸鴻難.'" 여기에서 마지막 두 구의 5언은 역시 혜강의 <兄秀才公穆入軍贈詩十九首> 중에서 15번째 시에서 나온 말이다. 그 시를 살펴보면, 息徒蘭圃, 秣馬華山. 流磻平皐, 垂綸長川. 目送歸鴻, 手揮五弦. 俯仰自得, 遊心太玄. 嘉彼釣叟, 得魚忘筌. 郢人逝矣, 誰可盡言. 마지막 4구는 현학의 名句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5와 6구는 혜강의 형을 군대에 보낸 작가의 마음을 묘사한 것이다. 즉 고개지가 이 시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보니 手揮五弦은 쉽지만 目送歸鴻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手揮五絃易, 目送歸鴻難)

41) 唐 陸廣微撰, ≪吳地記≫ : "闔閭塚在吳縣閶門外, 以十萬人治塚, 取土臨湖. 葬經三日白虎踞其上, 故名虎丘山."

"吳城의 서북쪽에는 호구산이 있는데, 진귀함을 머금었고, 古蹟을 감추어, 虛를 본받아 玄을 다하였다. 감춰진 가파른 언덕 가운데에 보이는 형체는 여느 언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바위 벼랑은 꽃핀 봉우리보다 절묘하도다."[42]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지가 이미 玄學에 대한 깊이가 "體虛窮玄"라는 句를 통하여 심오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개지의 남아있는 문건을 통하여 보면 東晋의 수도 建康일대(고개지의 고향은 근처 無錫임)와 桓溫과 殷仲堪의 막료로 있었던 荊州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의 賦작품에 <湘中賦>와 <湘川賦>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荊州에 근무하면서 남으로 瀟湘일대를 여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虎丘山序>는 그의 현학적 사고가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桓玄의 난이 진압된 이후 建康으로 돌아온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인 <水贊>을 보면, 4言 4句만 남아있는데, "담담하게 응결된 듯, 神을 質로서 펼쳤네. 바람을 타고 물결을 일으켜, 妙하게도 나란히 하나를 이루었네. (湛湛若凝, 開神以質. 乘風擅瀾, 妙齊得一.)"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傳神을 質로 함으로서 "妙齊得一"하였다는 고개지의 완성된 玄學的 사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水贊>이 지어진 배경은 荊州라기 보다는 사방이 물로 펼쳐진 虎丘山 일대로 짐작된다.

Ⅳ. 나가면서

이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개지의 모든 문학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창작물은 대분 散佚되고 조각난 일부분이 남아 있지만, 고개지는 賦작품을 많이 창작하였고, 그가 창작한 賦들은 詠物賦에 국한되어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駢麗賦의 틀에 구속되어있으며, 또한 그는 사물을 묘사하면

42) 엄가균, 상게서, <虎丘山序> : 吳城西北有虎丘山者. 含眞藏古, 體虛窮玄. 隱嶙陵堆之中, 望形不出常阜. 至乃品嶼, 絶於華峰.

서 회화적이면서 음악적인 미학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총괄하여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면, 작가는 形과 神의 두 요소에 치우침 없는 묘사를 추구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當時 그의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림보다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世說新語·文學》에는 宋明帝의 《文章志》를 인용하고 있는데,

> "환온이 말하기를 '고장강의 몸속에는 어리석음과 총명함이 반반인데, 종합하여 말하자면, 그저 평균수준이다.' 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세 가지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는데 '畵絶'·'文絶'·'痴絶'이 그것이다."[43]

라고 하였고, 연이어 고개지의 痴에 관한 故事를 들면서, 《續晉陽秋》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

> "고개지는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실제를 넘었기 때문에 여러 젊은 사람들이 추켜세운답시고 조롱하곤 했다. 그가 散騎常侍가 되었을 때 謝𣏌의 집무실과 맞닿아 있었는데, 달 아래 길게 읊조리면서 스스로 선현의 풍취를 얻었다고 말하곤 했는데 사첨은 매번 멀리서 칭찬하곤 하였다. 고개지는 이러한 칭찬을 얻으려고 더욱 힘을 내어 피곤함을 잊었다. 첨이 잠자리에 들면서 다리 주무르는 시종에게 대신 말을 하도록 하였는데, 고개지는 이상한 것을 모르고 거의 아침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44]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고개지가 회화에 있어서의 "畵絶" 이라는 칭송은 문학에 있어서의 "文絶"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는 조각으로 남아있는 문장들을 통하여, 神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形을 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形을 홀시할 수 없다는 자신

43) 상게서(상 368쪽), 宋明帝 《文章志》曰: "桓溫云: '顧長康體中癡黠各半, 合而論之, 正平平耳.' 世云有三絶, 畫絶·文絶·癡絶."
44) 상게서(상 368~9쪽), 《續晉陽秋》曰: "愷之矜伐過實, 諸年少因相稱譽, 以爲戲弄. 爲散騎常侍, 與謝𣏌連省, 夜於月下長詠, 自云得先賢風制, 𣏌每遙贊之. 愷之得此, 彌自力忘倦. 𣏌將眠, 語捶脚人令代, 愷之不覺有異, 遂幾申旦而後止."

만의 문예학적 이론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그가 쓴 <神情詩>와 남아 있는 조각 문장들에서 보이는 몇몇의 逸句들이 주는 감동은 쉽게 잊히지 않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參考文獻>

嚴可均 輯,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한성문화사, 1985 영인본.
陳傳席 編, 《六朝畵家史料》, 북경: 文物出版社, 1990.
李澤厚·劉綱紀 주편, 《中國美學史》中,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0.
邵洛羊 주편, 《十代畵家》, 상해고적출판사, 1991.
舒展 編, 《錢鍾書論學文選》 6권, 廣州: 花城出版社, 1990.
劉義慶 저, 김장환 역주, 《세설신어》상·중·하, 살림출판사, 2000.
沈括 저, 최병규 역, 《몽계필담》 상, 범우사, 2002.
劉偉林 저, 심규호 옮김, 《중국문예심리학사》, 동문선, 1999.
勞幹 저, 김영환 옮김, 《위진남북조사》, 예문춘추관, 1995.

<Abstract>

Gu Kaizhi(顧愷之: 235?~408?), an important artist and critic in the history of Chinese painting before the Tang Dynasty, gained fame as “Excellence in three fields(三絶)”. This survey focuses on some analyses, putting together scattered literary texts written by Gu. In this study, I have 7 pieces of Fu, 1 letter presented to the emperor, 2 prefaces, 1 funeral oration, 1 biography, 1 poem and some phrases that Yan Kejun(嚴可均 1763~1843) had omitted. Looking through these incomplete texts, I deduced that Gu had not abandoned external beauties for the description of inner

world. It is certain that his “Excellence in stupidity(痴絶)” could have embarrassed ancient critics. Gu’s fragmentary texts provide us a conviction that he tried to describe simultaneously form(形) and spirit(神) and his other title, “Excellence in literature(文絶)” was not a vain reputation.

주제어 : 고개지, 부, 전신, 이형사신, 현학, 삼절

KCI